

건강 칼럼

‘어반 그라니’ 젊어 보이는 외모 가꾸는 법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소비 트렌드의 주축도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39.4%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가정과 자녀의 책에서 벗어나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는 이들을 ‘어반 그라니(Urban Granny)’라고 한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50~60대 3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59.5%가 젊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아름다워지기 위한 성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응답자도 37.9%에 달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제2의 인생 전성기를 맞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여러 사람들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상대방에게 밝고 호감을 주는 인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 세대는 그동안 자녀 뒷바라지와 가사를 하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외모에 신경을 쓴다 해도 한 번 지나간 세월의 흐름을 스스로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반 그라니의 생활은 짧은 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들은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지인들과의 브런치 타임을

갖거나 뮤지컬 관람을 하는 등 문화생활을 즐긴다.

또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도 가까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최근 한 홈쇼핑 업체는 5060 세대만을 위한 패션 특별전을 마련하기도 했다.

꾸미는 데 관심이 많은 이들을 위해 스타일링 연출법 등 맞춤 정보도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안 5060 세대가 가장 많이 구입한 항목 1위는 마스크팩이었다.

이처럼 5060 세대는 건강과 외모 가꾸기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노화를 늦추고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신체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체력은 운동으로 기를 수 있고 기능성 화장품과 마사지로 노화를 어

는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생긴 세월의 흔적은 되돌리기 어렵다.

중장년층이 인적교류가 많아질수록 상대방에게 보이는 이미지에 더욱 신경 쓰게 되는데, 특히 눈가는 다른 부위에 비해 노화 속도가 빠른 편이다.

눈가는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잔 주름이 쉽게 생기며 탄력도 빨리 떨어진다. 이에 노안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피부 탄력이 감소하면 자연스레 눈가 피부도 아래로 처지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눈을 뜰 때 얼굴을 찌푸리고 눈썹을 치켜며 얼굴의 전반적인 주름을 야기하고, 눈가 피부의 잦은 접착으로 인해 피부가 짓무르고, 심하면 피부열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눈가 노화는 심미적

콤플렉스는 물론 기능상의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수술 후의 인상 변화 때문에 선택 수술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기능적 문제까지 개선해주는 ‘비절개 상안검’이 주목받고 있다.

비절개 상안검 수술은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실을 사용해 처진 눈꺼풀 근육과 피부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수술 후 부기와 통증이 적어 일상 생활에 무리를 주지 않아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며, 본인 눈처럼 자연스럽고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수술 시간은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중년들 중에서도 성형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경우가 있다. 성형 후 갑자기 인상이 바뀌거나, 강하게 보일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절개 없이 자연스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비절개 상안검이 적합하다.

단 예민한 눈 주변을 다루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 개인별 노화 진행 상태, 눈 모양, 피부 타입, 쌍꺼풀 유무 등을 고려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박선재

비노비기 성형외과 원장

독자제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알고계신가요?

간혹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주거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총격을 받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분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1~2일, 길게는 5일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해주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또는 가정·성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할 경

우 제공해주는 숙소 지원 사업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범죄 피해자들은 숙소가 외부로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임시숙소까지 경찰과 동행은 물론 경찰에서 임시숙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성 및 건전성 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피해자 심리적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구보민 진안경찰서 경무과 경찰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노르웨이 산사태 발생 보름 만에 시신 3구 발견



지난 17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북부 도시 트롬세 인근 티목 벨리에서 산악구조대가 눈사태 희생자 시신을 헬기로 옮기고 있다. 지난 2일 300m 너비의 눈사태가 발생해 스키여행객 4명이 사망한 가운데 노르웨이 경찰은 9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설

전북 대도약과 광역순환교통망 구축

전북도가 정책협의체 2차회의에서 대도약의 야젠다를 밝혔다. 그 중에는 광역순환교통망 구축도 있다. 전북도가 전북 대도약을 위해 광역교통 순환교통망 구축을 말한 만큼 그 성공을 위해서 더욱 힘내야겠다.

도민은 오래 전부터 SOC 대동맥 구축을 기대해왔다. 그 구축의 정도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전북도가 전에 말했던 규모 그대로이다. 전북도가 예전에 했던 말은 전국 어디든 교통망이 2시간 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는 동서철도 건설이며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여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그래서 SOC 대동맥을 구축하려면 더욱 힘내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은 전북도의 광역순환교통망 구축 발전과 관련해 거는 기대가 크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먼저 짚어볼 것이 있다. 전북도는 그것을 말한만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야심이며 비전이 청사진 구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전북도의 SOC 확충 의지는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현실에서는 매번 벽에 부딪히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가 전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녹록치 않다. 각 지자체마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며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했는데 현 정부도 오십보백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그러므로 전북도는 내년도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 전북도가 올해는 확실히 능동적으로 뛰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용감해야겠다. 전북도는 SOC 예산 집행과 관련해 왕성한 추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북도는 발전 현안을 위해서 성과 있는 실적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SOC와 관련해 해서 도민의 기대하는 것은 컸는데 매년 그에 못 미쳤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뒤처져 있다. 전북도가 광역순환교통망 구축을 천명한 만큼 올해 소기의 성과를 도민에게 보여주기 바라는 바이다.

일자리 확보 통해 인구감소 대책을

전북도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혔다. 들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 대책 강구가 인구 감소를 막는 지름길이기 때문인데 반증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역시나 어두운 것 천지다.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 꼴찌라는 보도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부끄러운 기록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 것인지 난감한 나날이다. 정말이지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오늘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먼저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해마

다 부족하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된 실업률 보도에 공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전북도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해마다 이때쯤이면 느끼는 것이 있을 터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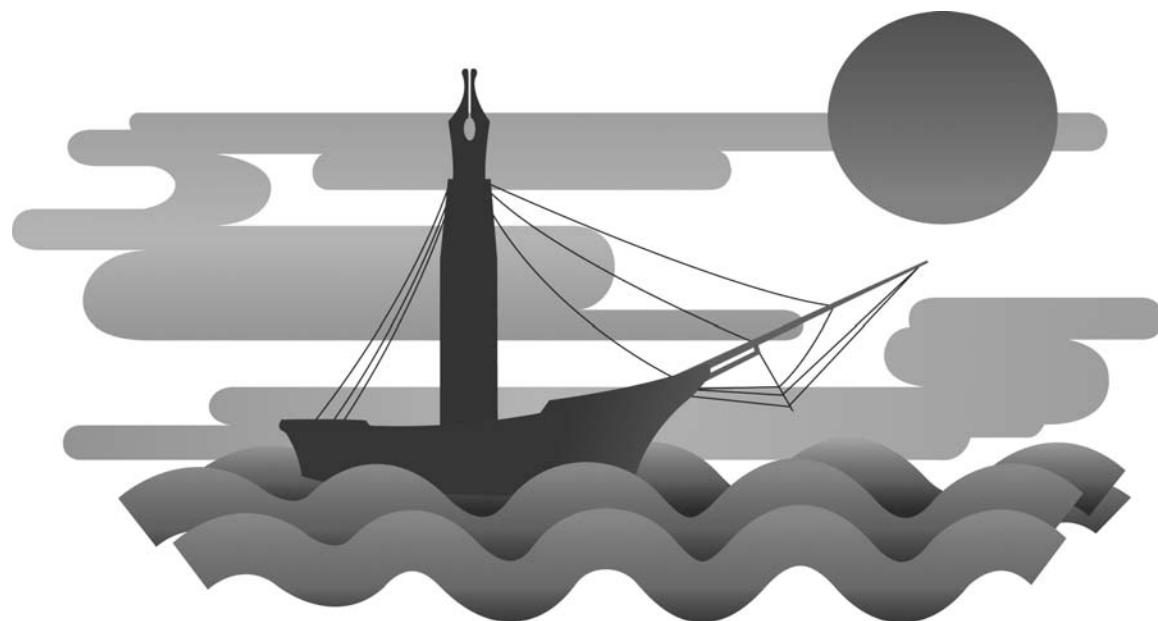
전북도가 올해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